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미당 서정주의 「화사집」 출간 50년 기념詩祭



“어비는 종이였다. 밤이 깊어도 오지않았다. / 파뿌리같이 늙은할머니와 대추꽃이 한주 서 있을뿐이었다! /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하나만 먹고 싶다하였으나... 스물세햇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하드라 / 어떤이는 내눈에서 천치를 읽고가나 /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영화배우 윤정희씨의 「자화상」 낭송으로 막이 오른, 지난달 24일 오후7시 서울 동숭아트센터 대극장에서의 미당 서정주 처녀시집 「화사집」 50년 축하詩祭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는 근래 보기 드문 문화계의 대규모 행사로 많은 이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었다.

‘한국현대시의 政府’로 일컬어질 정도로 막중한 시사적 무게에도 불구하고 한때의 정치적

입장으로 적지 않게 경원시당했던 미당의 詩業 50년을 기리는 성대한 잔치로 새삼스런 감회를 자아냈던 이날 행사는, 어떤 한 책이 우리 문학과 문화의 핵심적 상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이색적이었다.

한국일보사 김수남씨의 사회와 연극인 김석만씨 등의 무대연출로 진행된 이날 시제는, 박희진 이형기 이근배 김윤성 유경환 김남조 김동원 장민호 허영자씨 등이 「화사집」 수록시편 24수를 시집에 수록됐던 순서대로 낭송하는 한편, 가수 송창식·김영애씨 등의 시가곡, 무용가 김복희씨의 춤과 소리꾼 김경배씨의 시창 등이 어우러져 천여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 「화사집」 특제본의 복간본 헌정에 이은 미당 흉상(조각 박재소) 제막에 이르러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하객들이 던진 꽃들이 눈송이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미당은 “계속 헌역으로 남아 시를 쓰며 오늘의 이 성대한 축하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화사집」 50년 기념시제는 지난 6월3일자 한국일보 지상에 게재된 김성우씨의 칼럼에서 처음으로 촉발됐다. 「화사집 50년」이란 제목의 이 글에서 김성우씨는 미당이 “제5공화국 시절의 친정권적 발언으로 일부 세력의 지탄을 받아왔”지만 “한 시인의 정치적인 입장은 전혀 자유스러운 것”이라며, 50년전 김기림·임화·김광균·오장환 등이 모여 가졌던 명월관의 「화사집」 출판기념회보다 더 성대한 경축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 이어 그는 “이 자리에서 시인 자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화사집」 초판의 호화로운 특제본을 새로 복제하여 노시인에게 바치자. 그것은 이 시집이 50년



「화사집」 50년 기념 시제에서의 미당 서정주 내외.

이 지나도록 조금도 낡지 않았다는 헌사가 될 것이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김성우씨의 이 칼럼 이후 곧 박재삼씨 등이 미당시회를 조직, 5개월여의 준비 끝에 이번 시제를 마련했고 미당의 동국대 제자들이 주축이 된 도서출판 전원에서서는 수소문 끝에 “화가들의 캔버스용 천으로 포장하고 그 등매기는 최상질의 백색 명주에 주홍실로 수를 놓은 제목을 새겼으며 본문의 종이는 전주대지를 여러 겹으로 부해 다듬이질한 뒤 다시 다리미로 다린” 「화사집」 초판의 특제본을 복원하여 이날 행사장에서 봉정식을 가지게 됐다.

이와 함께 민음사에서도 윤정희씨의 낭송과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의 스크리아빈곡 연주로 이루어진 「화사집 음향시」 테이프를 내놓는 한편, 지난 1984년 초판을 선보였던 「미당 서

정주 시전집」을 울여름의 「山詩」까지 포함되도록 대폭 증보해 새로 선보였다.

그 「미당 서정주 시전집」의 해설로 씌어진 유종호교수의 「部族方言의 요술사」란 글의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은 이번 시제가 성대할 수밖에 없는, 한국시사에서의 미당시의 돌출한 위상을 잘 설명해준다.

“미당의 시는 이제 우리 터전을 지키는 큰 산이 되었다. 그 산그늘에 가리어 좀처럼 다른 시들이 햇볕을 못받을 정도다. 한국시의 과제는 이제 미당이란 큰 산을 어떻게 넘어서느냐는 것이기도 모른다.”

기획 편집 에서 인쇄 제본 까지

망설이고 계십니까?

- 문장력에 자신이 없어서...
- 소요되는 제작비가 부담이 되어서...
- 원고를 맡길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민의 편집인을 만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현역 문인의 원고 다듬기와 편집, 꼼꼼한 교정은 첫번째 만족을 드릴 것이며, 적은 제작비용으로 원하시는 이상의 출판물을 제작하였다는 기쁨과 만족을 두번째 드릴 것입니다.

회보, 자서전, 전기 집필, 일반 단행본, 전문 서적 등 출판에 관한 일이라면 먼저 목민의 심부름꾼을 만나 보십시오.

출판 기획 **牧民**
전화 823-4175